

御眞圖寫와 그에 나타난 宮中服飾

成均館大學校 生活科學大學
衣裳學科 教授 劉頌玉

目 次	
I. 序 論	3. 袞龍袍 着用 御眞
II. 御眞圖寫와 眞殿	4. 軍服 着用 御眞
III. 御眞에 나타난 宮中服飾	5. 冠服 着用 御眞
1. 冕服 着用 御眞	IV. 結 論
2. 絳紗袍 着用 御眞	

I. 序 論

御眞이란 王의 畫像인 肖像畫를 뜻하는 用語이다. 朝鮮王朝實錄에는 王의 畫像에 대하여 御眞이라는 용어 外에 御容, 影幀, 眞容, 眞, 影子, 聖容, 睟容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肅宗 39年(1713年)에 肅宗御眞을 圖寫할 당시에「御容圖寫都監」의 都提調였던 李頤命과 提調였던 趙泰耆, 金鎮圭, 閔鎮遠 등이 품하여 王의 畫像을 御眞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承政院日記」에 보면 影子란 王이 자칭하는 용어 이므로 臣下된 도리로서는 감히 칭할 바가 못 되며, 影幀은 '幀'字의 뜻이 퍼서 건다는 의미이므로 죽자와 같이 꾸며 놓은 뒤가 아니면 칭하기 곤란하다. 또한 睟容이란 단순한 모습을 치칭하는 것이므로 圖寫時에는 칭하기 어렵고, 御容이라는 표현도 거칠고 撲厚하다. 무릇 傳神을 繼承시키고자하는 信念으로 그린 王의 畫像은 御眞으로 부를 수 있으며 또한 王의 畫像을 모시는 전각을 眞殿이라 일컬어 왔으므로 王의 畫像은 '御眞'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정되었다.¹⁾ 그리하여 그 이후부터 御眞이라는 用語는 王의 畫像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으

며 죽자로 꾸며 놓은 것을 影幀이라고 표현한 것은 國末까지 계속되었다.

本研究의 目的은 御眞圖寫의 繪畫史的인 意義를 考察하고 또한 着裝 상태의 御眞에 나타나는 服飾의 形態와 色相, 裝身具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서 記錄으로만 대하거나 遺衣로만 보아오던 宮中의 王室 服飾을 着裝상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더욱 완벽하게 알아 보기 위함이다.

研究의 範圍는 御眞圖寫의 기록이 확실한 太祖(1392年)에서부터 純宗(1910年)에 이르기까지의 朝鮮王朝時代의 御眞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現在까지 남아있는 御眞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研究 方法은 御眞 中에서 全身이 완전하게 보전되어 있는 御眞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半身像으로 그린 어진과 圖寫時에는 全身像이었으나 6·25 사변 당시 화재로 인하여 불에 타다가 남은 御眞까지 모두 찾아내어 촬영하고 御眞에 대한 記錄이 있는 「朝朝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春官通考」, 「璿源系譜」, 「文獻備考」 등을 대조하여 御眞圖寫의 方法과 繪畫的 特徵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着裝 상태의 御眞에서 구체적인 服飾形態와 着衣 方法

1) 「承政院日記」第477冊, 肅宗 39年 癸巳 5月 6日 壬午條

等を 알아 보고 「國朝五禮儀序例」, 「國朝續五禮儀補序例」, 「經國大典」 등의 服飾 기록과 대조하여 考祭해 보고자 한다.

II. 御眞圖寫와 眞殿

朝鮮王朝時代에는 太祖代에서 부터 純宗에 이르기 까지 매우 많은 御眞이 그려졌으며 이러한 御眞制作은 圖寫, 追寫, 模寫의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圖寫란 王이 살아 계실때 그 晬容을 보면서 그리는 것이고, 追寫란 王이 승하하신 뒤에 그 수용을 그리는 것으로서 생존시 王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臣下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草本을 그리어 완성시키는 것이다. 模寫란 이미 그려진 御眞을 範本으로하여 그것을 보고 그리는 것인데 이때에는 範本을 밑에 바쳐 놓고 新本의 草本을 移模하여 완성시키는 것이다.²⁾

御眞을 奉安하는 전각을 眞殿이라하는데 이러한 眞殿을 새로 지었을 때 새 진전에 봉안할 어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模寫로 御眞을 製作하게 되며 그외에 전란이나 화재로 인하여 기존의 眞殿이 소실 되었을 때에도 새로 복구한 진전에 어진을 봉안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진전에 봉안 되어있는 어진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範本으로하여 新本의 御眞을 模寫하였다.

太祖眞殿으로 漢陽에는 文昭殿을 세우고 太祖가 誕降한 咸鏡道 永興府에 濬源殿을 세웠다.³⁾ 고구려의 수도이며 고려의 西京인 平壤에는 永崇殿을 세우고, 고려의 수도이고 太祖 잠저시 옛터 開城府에 穆淸殿을 세웠으며 신라의 수도였던 慶州府에 集慶殿은 세웠는데 경주부는 당시에 鷄林府라 하였다.⁴⁾ 또한 全州에도 慶基殿을 세워서⁵⁾ 모두 6곳에

진전이 세워졌으며 이 6眞殿에는 太祖의 御眞만 奉安하였다. 太祖진전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太祖 5年(1396年)에 창건된 準元전으로서 太祖 7年(1398) 2월에 太祖 御眞이 처음 봉안 되었다.⁶⁾

世宗朝에 이르러 列祖의 수용을 모시기 위하여 敬福宮 동북쪽에 濬源殿을 지어 세종 12年(1430)에 孝寧大君으로 하여금 先王先后의 御容과 濬源錄을 봉안하게 하였다.⁷⁾

高宗 光武4年(1900) 10월에 선원전이 실화사건으로 소실되어 그곳에 봉안됐던 太祖, 肅宗, 英祖, 正祖, 純祖, 翼宗, 憲宗 御眞을 각각 濬源殿, 永禧殿, 平樂殿, 冷泉亭으로부터 어진을 들여와 趙錫晉, 蔡龍臣의 11人의 畫師가 8개월간 移模重建事業을 벌였다.⁸⁾ 그에 앞서 高宗 光武3年(1899) 11월부터 光武4年(1900) 4월까지 太祖 御眞을 함경도의 準元전에서 모셔다가 移模하여 同年 4月 24日에 新本 影幀을 선원전에 봉안하고, 同月 28日에 舊本 영정을 準元전으로 還安하였다.⁹⁾

御眞模寫과정을 光武 3年~4年(1899~1900)에 製作된 「影幀模寫都監儀軌」에서 보면 都提調 1人 議政府 議政 尹容善, 提調 4人 閔泳煥, 金錫鎭, 李鏞永, 李容植, 道廳 2人, 郎廳 2人, 監造官 2人(8名이 차례로 교체) 雇員 9人, 使令 5名, 使喚 4名이다. 詔勅에 보면 光武 3年 己亥 11月 29日에 보면 弘文官學士 李根命이 疏하기를 濬源殿에 六聖御眞이 봉안 되어 있는데 第一室이 비어 있으니 太祖 高皇帝의 御眞을 다시 模寫하여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또 歷代御眞을 모실 永禧殿을 營建하기를 上疏하였다. 이 疏를 重臣들이 논의하여 影幀模寫都監을 설치하기로 하고 永禧殿 營建都監을 合設하여 영의정 尹容善을 都提調로 삼았다.¹⁰⁾

2) 趙善美, 「韓國의 肖像畫」 悅話堂. pp. 109~166

3) 「春官通考」 卷之二十五 吉禮 眞殿 濬源殿在 咸鏡道 永興府 東西順安社 黑石里 即桓祖舊邸而太祖誕降之基也奉安

4) 「太祖實錄」 卷13. 7年 戊寅 3月 癸丑條.

5) 「太宗實錄」 卷20. 10年 庚寅 9月 壬辰條

6) 「太祖實錄」 卷之13. 7年 戊寅 2月 癸卯條 遺芸文春秋館大學士 成石璘奉安 上影千咸州 濬源殿

7) 「世宗實錄」 卷50. 12年 庚戌 11月 己未條

8) 「祕書院日記」 高宗 光武 4年 庚子 閏 8月 21日~ 光武 5年 辛丑 4月 27日條

9) 「影幀模寫都監儀軌」 時日條 二十四日 影幀新本 奉安 濬源殿 二十八日 影幀舊本 還安 濬源殿

이와 같이 御眞圖寫나 御眞(影幀) 模寫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都監을 설치하였는데 初·中期에는 都監을 설치하지 않고 圖寫나 模寫를 하기도 하였다.

畫員 선발은 圖畫署 畫員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 받는 畫員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圖畫署 畫員 以外에 전국에 善畫者를 널리 구하여 그 중에서 御眞模寫 畫員을 試才를 거쳐 합격자로 선발 하기도 하였다.

畫布는 廣綃로 하였는데 工曹나 尙衣院에서 織造 작업을 담당하였고 織造 진도는 一日에 一尺二寸씩에 불과하도록 정성을 다하였다.

御眞의 冠袍는 御眞圖寫時에 容顏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制度가 직접표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文彩 色相等을 古制와 당시의 規制를 충분히 참고하여 시정하면서 진행하였다.¹⁰⁾

草本을 圖寫할 때는 一段 紙面에 御容을 墨畫로서 그리는데 이 때 王의 服飾은 冕服이나 遠遊冠 絳紗袍, 翼善冠 袞龍袍, 軍服 중에서 한 가지를 입은 모습을 그리기도 하는데 肅宗 39年 4月 8日부터 同年 5月 22日 까지 製作된 어진 도사시에는 遠遊冠차림 1本과 翼善冠 차림 1本으로 합계 2本이 出草되기도 하였다.¹²⁾

Ⅲ. 御眞에 나타난 宮中 服飾

朝鮮王朝에 제작된 많은 御眞은 6·25 사변때 부산 피난시에 어진을 보관하던 창고에 불이 나서 거의 다 燒失되었으며 그중에 몇폭의 어진이 불에 타다가 반 정도만 남은 半燒 상태로 現存하고 있다. 現存하는 圖寫, 模寫된 어진은 太祖御眞 2本, 英祖御眞 2本, 純祖御眞 1本, 翼宗어진 1本, 哲宗御眞 1本, 高宗御眞 1本이 있으며 寫眞으로 찍은 御眞은 高宗, 純宗皇帝御眞이 있다. 朝鮮王朝代의 御眞과 그중에서 現存하는 御眞의 例는 <표 1>과 같다.

이 現存하는 御眞을 服飾의 形態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冕服 着用 御眞

冕服을 착용한 상태로 그려진 御眞으로서 現存하는 것은 翼宗 御眞이 있다. (그림 1) 이 어진은 오른쪽이 길이로 반이상 燒失되어 全身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우나 그나마 半身이라도 남아 있어서 冕服着用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冕服本 御眞의 좌측 상단에 보면 '翼宗敦文顯武仁懿孝明大王十八歲御眞'이라고 表題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文祖翼皇帝御眞'이라고 쓰여진 紅籤이 붙어 있다. 이 表題로 보아 翼宗 18세 때에 圖寫된것을 알 수 있는데 익종 18세 되는 해는 純祖 26年(1826)으로서 익종이 王位에 오르기 전 王世子 昊로서 冕服을 입고 圖寫된 것이다. 王世子 昊는 純祖 30年(1830)에 22才를 일기로 승하했으며 憲宗 即位年에 翼宗大王으로 追尊되었다.¹³⁾

翼宗 御眞은 『璿源系譜』에 의하면 純祖 26年(1826)에 大本 2本, 小本 1本을 圖寫했으며, 純祖 27年에도 大本 1本, 小本 2本을 도사했고, 순조 30年(1830)에도 2本을 도사하여 모두 8本을 제작하였다. 現存하는 御眞은 純祖 26年인 丙戌年에 圖寫된 大本 中에 1本이며 처음에 景恭宮 望廟樓에 奉安되었던 것이다. 그후 高宗 光武 3年(1899)에 翼宗은 文祖翼皇帝로 추존 되어 光武 4年(1900)에 移模할 때상단 표제안 쪽에 '文祖翼皇帝'라는 홍첩을 추가로 題하였다. 光武 4年에 선원전 화재후에 太祖 肅宗, 英祖, 正祖, 純祖, 翼宗, 憲宗 어진을 移模할 때 模寫된 어진이다. 翼宗의 어진은 우측이 절반 이상 소실되어 좌측만 남아 있다해도 冕服의 형태는 알아 볼 수 있다. 冕服은 王이나 王世子の 것이 형태는 모두 같고 다만 章紋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翼宗이 王世子 時에 입었던 면복으로서 王世子 면복 뿐 아니라 王의 冕服까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

10) 「影幀摹模寫都監儀軌」詔勅 己亥十一月二十九日.

11) 李康七, 「御眞圖寫過程에 對한 小考」, 『古文化』 第十一輯. 1973. 韓國大學博物館協會 pp. 3~6

12) 「承政院日記」第447冊, 肅宗 39年 癸巳 5月 5日 壬午條

13) 劉頌玉,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修學社, 1991. pp. 114~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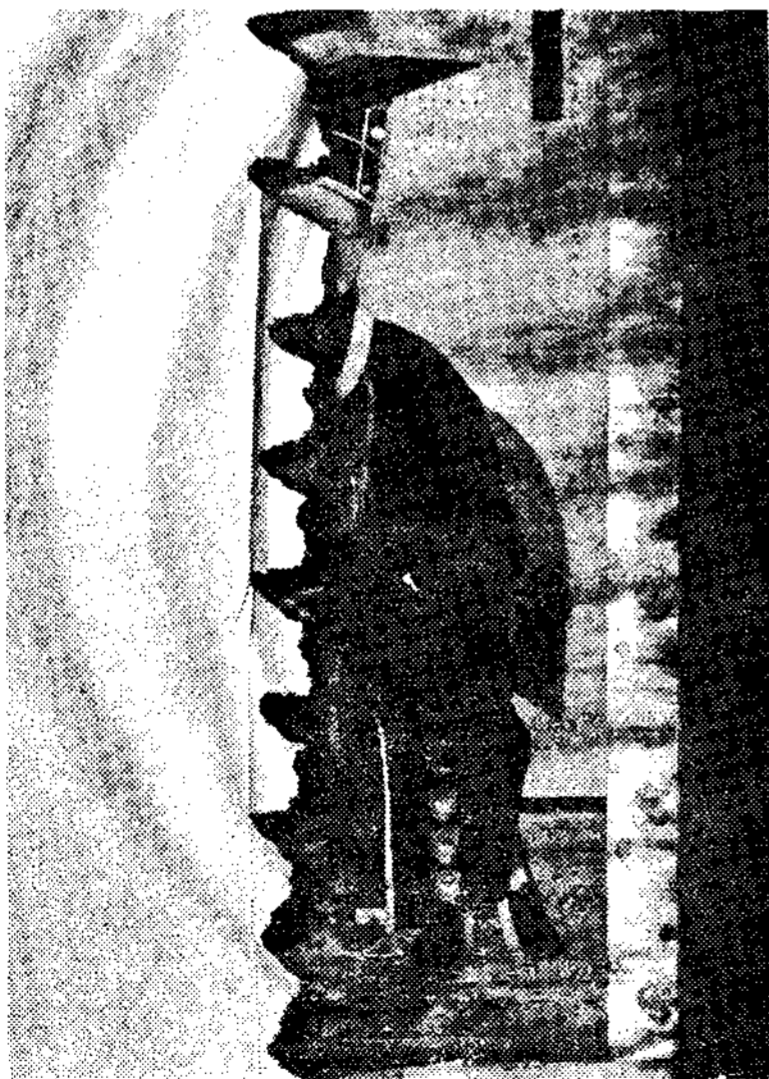
14) 「高宗實錄」卷 40. 光武4年 10月 14日條

〈표 I〉 朝鮮王朝 御眞에 나타난 服飾

現在有 ○ 丑

御眞名	着用服飾	製作年代	現在有無
太祖御眞	翼善冠, 青袞龍袍 翼善冠, 袞龍袍 翼善冠, 紅袞龍袍 翼善冠, 青袞龍袍 翼善冠, 紅袞龍袍 翼善冠, 紅袞龍袍	太祖代圖寫 肅宗 21年(1695) 模寫 憲宗 4年(1838) 模寫 高宗 9年(1872) 模寫 高宗 光武3~4年(1899~1900) 模寫 高宗 光武 4年(1900) 模寫	○ ○(半燒)
定宗御眞	未詳	定宗即位年(1399)圖寫	
太宗御眞	-	太宗 2年(1402)圖寫	
世宗御眞	-	世宗 26年 (1444)圖寫	
文宗御眞	-	文宗代 圖寫	
世祖御眞	-	睿宗元年(1409)이전 圖寫 成宗 23年 (1492) 模寫 英祖 11年(1735)圖寫	
德宗御眞	-	世祖 2年(1456) 9月 이전 草本 成宗 3年(1472)追寫	
睿宗御眞	-	成宗 3年(1472)追寫	
成宗御眞	-	燕山君 2年(1495)追寫	
中宗御眞	-	仁宗 元年(1545) 追寫	
明宗御眞	-		
元宗御眞	冠服	仁祖 10年 (1632) 이전 草本	
肅宗御眞	未詳 遠遊冠·絳紗袍 翼善冠, 紅袞龍袍 未詳	肅宗 21年(1695)圖寫 肅宗 39年(1713) 圖寫 英祖 24年(1748)模寫	
英祖御眞	青綠冠服 未詳 翼善冠, 紅袞龍袍 2本 冕服 2本, 袞龍袍 1本 道袍 2本 遠遊冠·絳紗袍 翼善冠, 紅袞龍袍 2本 翼善冠, 紅袞龍袍	肅宗 40年(1714) 圖寫 景宗 4年(1724) 草本圖寫 英祖 9年(1733) 圖寫 英祖 20年(1744) 圖寫 英祖 30年(1754) 國寫 英祖 39年(1763) 圖寫 英祖 49年(1773) 圖寫 高宗 光武 4年(1900) 模寫	○ ○
正祖御眞	翼善冠, 紅袞龍袍 遠遊冠, 絳紗袍 未詳 遠遊冠, 絳紗袍	正祖 5年(1781) 圖寫 正祖 15年(1791) 圖寫 正祖 20年(1796) 圖寫 高宗光武 4年(1900) 模寫	
純祖御眞	遠遊冠, 絳紗袍 遠遊冠, 絳紗袍	純祖 30年(1830) 圖寫 高宗光武 4年(1900) 模寫	○(半燒)

御眞名	着用服飾	製作年代	現在有無
翼宗御眞	冕服 未詳 未詳 冕服	純祖 26年(1826) 圖寫 純祖 27年(1827) 圖寫 純祖 30年(1830) 圖寫 高宗 光武 4年(1900) 模寫	○(半燒)
憲宗御眞	冕服 翼善冠, 紅袞龍袍 軍服	憲宗 12年(1846) 圖寫 " "	
哲宗御眞	大 1, 小 2本 軍服 遠遊冠, 紗紗袍	哲宗 3年(1852) 圖寫 哲宗 3年(1852) 圖寫 哲宗 12年(1861) 圖寫	○(半燒)
高宗御眞	冕服 5本 翼善冠, 紅袞龍袍 軍服 大小 2本 幅巾 通天冠 絳紗袍 (翼善冠, 黃袞龍袍)	高宗 9年(1872) 圖寫 " " " (寫眞)	○ ○
純宗御眞	翼善冠, 袞龍袍 (翼善冠, 黃袞龍袍)	純宗(1928) 圖寫 (寫眞)	○



〈그림 1〉冕服(翼宗御眞)

王世子 昊의 嘉禮는 純祖 19年(1819)에 치렀고 御眞은 純祖 26年(1826)에 그려진 것이므로 가례시

입은 冕服은 11才때 입은 것이어서 그 7年 후에 그려진 어진의 冕服과는 同一品은 아닐것이나 같은 王世子 신분으로 입은 冕服이므로 모든 形制는 같았을 것이다. 純祖 19年(1819)에 거행된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의 法服으로서의 冕服 1件의 衣次는 鴉青熟絹二匹, 白熟絹 一匹十五尺, 大紅熟絹 一匹이며 赤襪, 赤舄이 따른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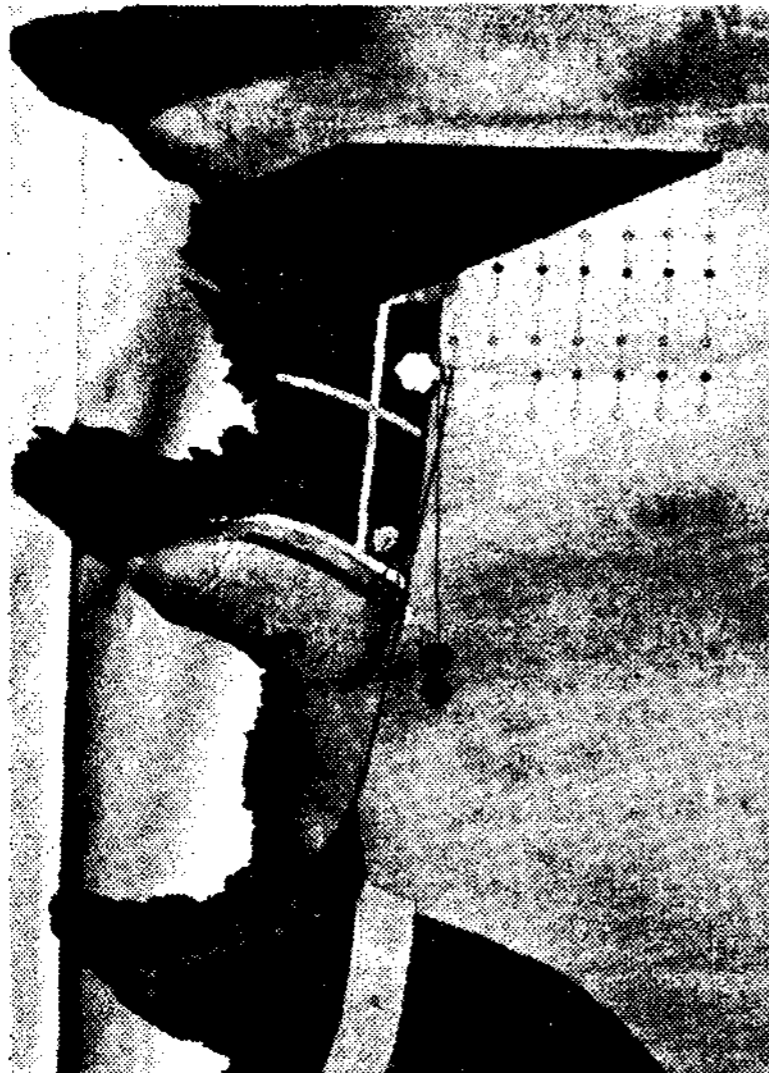
「國朝五禮儀序例」王世子 冕服은 王의 九章服과 同制이나 章紋에서 山, 龍紋이 제외된 七章服이며 八旒冕으로 되어있다. 그 구성은 圭, 冕, 衣, 裳, 大帶, 中單, 佩, 方心曲領, 蔽膝, 襪, 舄으로 되어 있다.¹⁶⁾

翼宗 御眞의 服飾을 살펴보면 冕旒冠은 冕版이 걸은 玄色이고 안은 纁色이며 金飾한 8旒로 생각되는 旒가 늘어졌는데 그림 오른쪽에 보이는 류는 7류이지만 면판의 폭과 류의 간격으로 미루어 보아 1류는 가리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8旒에 每旒마다 8玉을 꿰었는데 朱, 白, 蒼, 朱, 白, 蒼, 朱, 蒼의

15)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 法服

16) 「國朝五禮儀序例」卷61. 吉禮 祭服 圖說, 王世子 冕服條

순서로 되어 있는데 첫번째 朱玉은 면관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다. 金簪을 꽂고 靑玉璫을 귀까지 늘어뜨려 充耳로 하였으며 紫組로서 턱 밑에서 매었다. (그림 2)



〈그림 2〉冕旒冠 (翼宗御眞)

「國朝五禮儀序例」에서는 8旒에 매류마다 8玉을 꿰는데 朱, 白, 蒼의 三彩旒를 꿰다고 기록 되어 있는것과 일치하여 끝에 朱, 蒼으로 끝나는 것은 기록에서 알 수 없는 세밀한 부분이다. 衣는 玄色으로서 어깨에 火紋이 크게 1개 그려져 있고 소매에 火紋을 작게 2개 그린 밑에 華蟲 3개, 宗彝 3개 색을 그렸다. 纁色裳을 입은 위에 纁色蔽膝을 입었는데 藻, 粉米, 鷩, 黼章紋이 있었을 것이나 윗부분은 타서 보이지 않고 黼紋만 보인다. (그림 3)

方心曲領은 白色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 綠纓이 늘어져 있는데 오른쪽에는 紅纓이 있었을 것이다. 「國朝五禮儀序例」에 보면 방심곡령에는 양쪽에 纓이 있는데 왼쪽에는 녹색, 오른쪽에는 홍색영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림 4)

佩玉이 왼쪽 밑으로 늘어져 보이며 赤襪과 赤舄을 신고 있다.

이 冕服에서 생각할 점은 色의 문제인데 「國朝五

禮儀序例」에서는 玄色이라 하였고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에서는 鴉靑色이라 하였으며 翼宗御眞



〈그림 3〉章紋 (翼宗御眞)



〈그림 4〉方心曲領 (翼宗御眞)

冕服은 玄色이다. 「國朝五禮儀序例」에서의 玄色은 靑黑色에 赤色이 들어있는 것이라 하였는데¹⁸⁾ 익종어진의 冕服色으로 보아 玄色은 靑黑色, 鴉靑色에

17) 「國朝五禮儀序例」卷61. 方心曲領以白羅爲之 旁有兩纓 左綠右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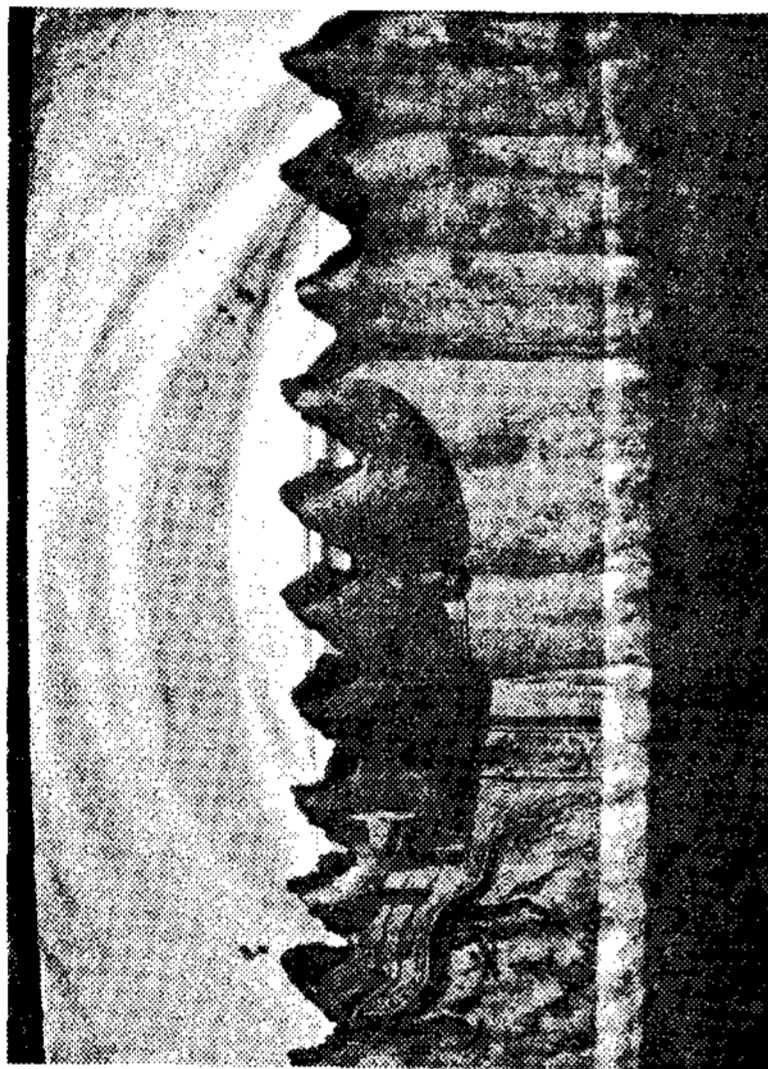
18) 「國朝五禮儀序例」卷 61. 吉禮. 祭服圖設

서 검은색에 이르는 색에 赤色이 들어있는 색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絳紗袍 着用 御眞

絳紗袍를 着用한 御眞은 純祖御眞과 高宗御眞이 있다.

純祖御眞은 오른쪽이 半이상 燒失되고 왼쪽으로 반도 못되게 남아 있다. (그림 5) 왼쪽 상단에 '純祖 肅皇帝御眞' 光武四年 庚子移模라고 쓰여진 홍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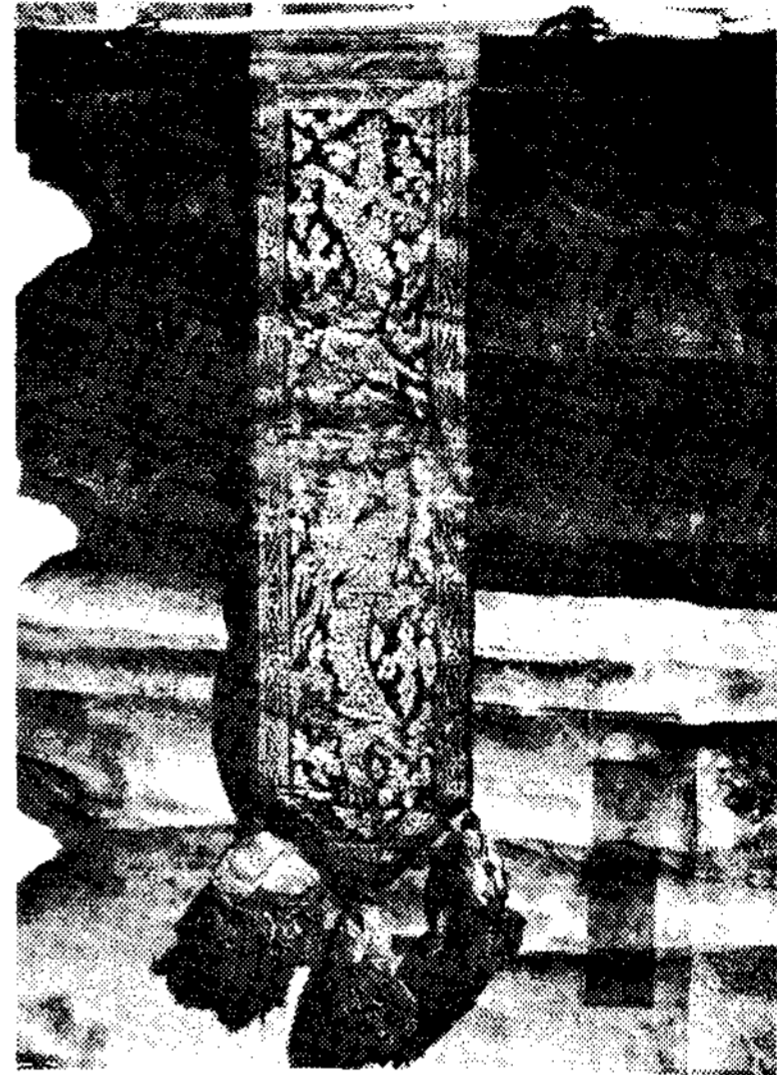


<그림 5> 絳紗袍(純祖御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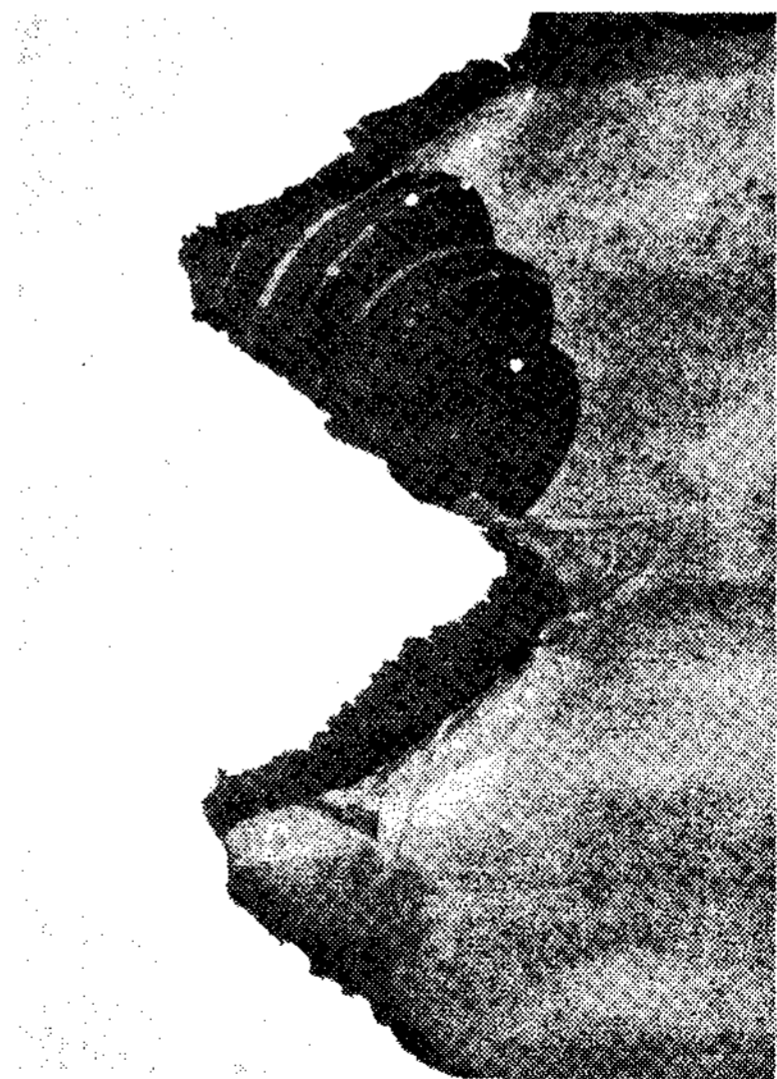
表題가 붙어 있다.(그림 6) 이 純祖御眞은 純祖 30年(1830)에 畫師 金健鍾外 7人의 畫師가 圖寫하여 璿源殿에 奉安하였는데¹⁹⁾ 高宗 光武 4年(1900) 선원전 화재로 太祖御眞부터 憲宗御眞까지 7王御眞 移模重建事業을 벌릴때 趙錫晉, 蔡龍臣等의 畫師에 의하여 模寫된 것이다.²⁰⁾

이 純祖御眞의 遠遊冠은 4梁만 보이지만 원유관의 폭과 4梁의 간격으로 보아 九梁이었을 것이며 금잠을 꿰고있다. (그림 7) 「國朝五禮儀序例」 遠遊冠服條에 보면 구성은 圭, 冠, 衣, 裳, 大帶, 中單, 佩, 綬, 蔽膝, 襪, 烏으로 되어 있고 冠은 九梁冠으로서 每梁에 18玉을 꿰어 앞에 9玉 뒤에 9玉이 되게

하며 五采色으로 黃, 蒼, 白, 朱, 黑 순서로 꿰는다. 金簪을 꿰고 冠의 朱組 2줄을 달아 턱밑에서 매고 그 나머지는 늘어 뜨린다²¹⁾고 하였으며 「增補文獻備考」에 보면 遠遊冠은 左右에 玉을 꿰 梁이 螺文形



<그림 6> 純祖御眞表題



<그림 7> 遠遊冠(純祖御眞)

19) 「御眞圖寫事實」

20) 「秘書院日記」 高宗 光武4年 庚子閏 8月 21~ 光武 5年 辛丑 4月 27日條

21) 「國朝五例儀序例」 冠服國說 遠遊冠

을 이루고 전면에 玉裝飾을 하였다²²⁾고 하였다.

純祖御眞의 衣와 裳은 絳色이며 羅나 紗 혹은 緞으로 생각되고 蔽膝의 紕純이 보인다.

高宗御眞 絳紗袍本은 通天冠을 쓰고있다. (그림 8) 通天冠은 遠遊冠과 그 形制가 같으나 원유관이 9梁에 5采玉을 9玉씩 꿰는것에 비하여 12梁에 5采玉을 12朱씩 꿰었으며 12首의 附蟬이 장식 되었고 관 앞에 山述이 장식 되어 있다. 朱纓을 양쪽에



〈그림 8〉 絳紗袍(高宗御眞)

달았으며 옥잠을 꿰었다. 이 通天冠에 대해서 「續漢書」에 보면 遠遊冠과 形制가 같고 冠 앞에 山述이 더 있다²³⁾고 되어 있어서 記錄과 일치하고 있다. 絳紗袍는 絳色이며 緞으로 생각되는 윤기 있는 질감의 느낌을 주고 있으며 구성은 「國祖五禮儀序例」 遠遊冠服條에 따르고 있으면서 거기에 玉帶가 더 추가 되고 있다.

「增補文獻備考」에 보면 中單의 形制도 絳紗袍에서와 같은데 다만 紅領에 黻紋을 中國 皇帝에 준하여 13個를 金箔한 것이 차이가 있다²⁴⁾고 하였는데 이 어진에서는 中單이 속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겉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國朝五禮儀序例」에는 없는 동정이 달려있어 國末에 國俗化된 형태를 나타내 주고 있다.

3. 袞龍袍 着用 御眞

袞龍袍를 착용한 模寫된 御眞은 3本이 現存하고 있다. 太祖의 靑袞龍袍本과 紅袞龍袍本 2本과 英祖의 紅袞龍袍本을 합해 모두 3本이 있다. 國末에 黃袞龍袍를 착용한 高宗과 純宗御眞이 있는데 本研究 범위를 圖寫혹은 模寫로 된 초상화로 한정 하였으나 사진으로 찍은 御眞이라도 御眞 이므로 여기에 服飾 비교를 위하여 포함시킨다.

靑袞龍袍를 입은 太祖御眞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慶基殿에 봉안 되어 있는 것이다.(그림 9) 慶基殿은 太宗 10年(1410)에 창건되었으며 이 해에



〈그림 9〉 靑袞龍袍(太祖御眞)

平城君 趙絹을 보내어 봉안했다. 이 어진은 太宗 9年(1409) 2월에 경상도 鷄林府 즉, 지금의 慶州 集慶殿本을 範本으로하여 移模한 어진이다.²⁵⁾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다른 眞殿의 화재로 인하여

22) 「增補文獻備考」卷79. 禮考 36章服

23) 柳喜鄉,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P. 195 「續漢書」 輿服志

24) 「增補文獻備考」卷 79. 禮考 26 章服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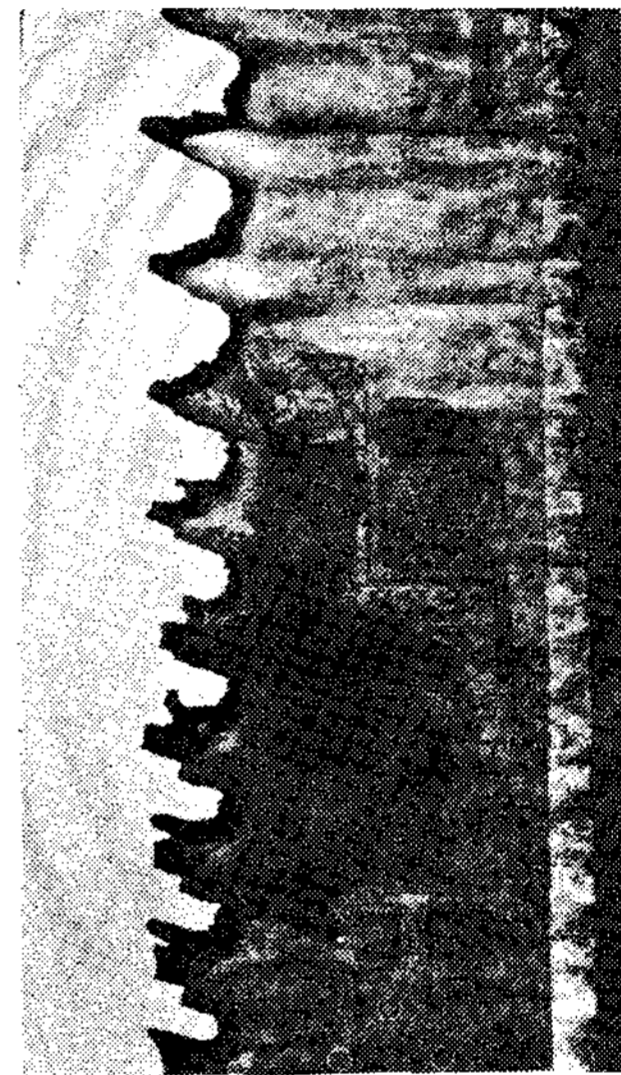
25) 「太宗實錄」卷17. 9年 己丑2月 庚寅條

模寫를 위한 範本이 되기도 하고 또 수차 修補하였으나 너무 낡아져서 高宗 9年(1872)에 移模하였다. 朴基駿外 7人의 畫師가 4月에서 5月에 걸쳐 模寫한 御眞이다.²⁶⁾ 이 慶基殿 御眞의 範本은 鷄林府本으로서 이 계림부 어진은 太祖 5年(1396) 3月에 봉안된 것이다.²⁷⁾ 따라서 이 靑袞袍本 太祖 御眞은 太祖 5년에 그려진 것을 範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太祖代의 袞袍 形態와 色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몇번의 移模를 거쳤다고 해도 그 당시의 袞袍의 色과 形制를 잘 관찰할 수 있다.

이 太祖 御眞을 보면 鴉靑色 袞袍를 입고 翼善冠을 쓰고 있다. 翼善冠은 검은색으로 帽頂이 낮고 烏紗折上 兩角의 끝이 비교적 뾰족하게 올라가 있다. 鴉靑色 袞袍는 團領의 깃이 목에 꼭맞게 올라 붙어있고 소매는 窄袖로 진동쪽에서 袖口 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좁아지고 있는데 공수하고 있는 손을 내린다면 소매의 길이가 매우 길 것으로 보인다. 五爪圓龍補가 매우 크게 前·後와 양견에 장식되어 있다. 이 靑袞袍는 世宗 26年에 明으로부터 賜與받은 大紅色 袞袍보다 前의 것이기 때문에 明制에 따르기 以前의 袞袍로 생각되며 袍의 양옆트임이 뒤돌림되어 있지 않고 옆으로 퍼져나가 內拱이 紅色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袞袍 속에 靑天益이 보이고 있는데 靑天益의 內拱 역시 紅色인것을 보여 주고 있다. 金帶를 띠고 있고 黑靴를 신고있다. 「國朝五禮儀序例」에는 玉帶로 되어있는데²⁸⁾ 그 규정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또 太祖 御眞의 1本은 紅袞袍本인데 오른쪽이 길지로 반이상 소실되어 왼쪽만 반도 못되게 남아 있다.(그림 10) 이 紅袞袍本은 憲宗 4年(1838)에 畫師 李在寬에 의해 模寫되어 璿源殿에 봉안되었던 것인데 선원전 화재로 高宗 光武 4年(19

00)에 移模된 것이다.²⁹⁾ 좌측 상단에 '太祖高皇帝御眞' 光武四年庚子 移模라는 홍첩이 붙어 있다. 이 紅袞袍의 形制는 靑袞袍와 똑같으면서 色만 紅色으로 마꾼 것이다. 世宗 26年에 明으로부터 사여받은 常服은 翼善冠1頂, 玉帶1部, 袍服' 3襲, 各 3件안에 紵絲大紅織金의 袞袍暗花骨朵雲袍, 紗大紅織金의 袞袍暗花骨朵, 羅大紅織金의 袞袍와 袴履, 帖裏, 阜鹿皮靴1雙이다.³⁰⁾ 이러한 사여를



〈그림 10〉 紅袞袍(太祖御眞)

받은 이후로는 歷代 王들이 常服으로, 靑色아닌 紅袞袍만 입어왔기 때문에 憲宗朝에 太祖 御眞을 模寫할 때 靑色을 紅色으로 바꾸어 彩色한 것으로 생각된다. 紅袞袍의 옆터짐에서 보면 內拱은 靑色이며 속에 입은 天益은 草綠色에 內拱은 紅色이다. 「憲宗孝顯後嘉禮都監儀軌」에 보면 天益 一次에 草綠吐紬一匹, 內拱 礪紅鼎紬二匹이 들어 있어³¹⁾ 이 기록과 憲宗代의 常服 着裝 상태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黑靴와 御座에 그려진 五爪龍紋과 雲鶴

26) 「高宗實錄」9年 壬申條

27) 「太祖實錄」卷13. 7年 戊寅 3月 癸丑條

28) 「國朝五禮儀補序例」殿下 視事服國說

29) 趙善美, 「韓國의 肖像畫」悅話堂, pp.146~178

30) 「世宗實錄」卷 103. 26年 3月條

31) 「憲宗孝顯后嘉禮都監儀軌」大殿衣褂

紋은 두 御眞에서 모두 같다.

英祖의 紅袞龍袍本 御眞은 上半身만 그린 半影이다. 이 御眞은 英祖 20年(1744)甲子年에 圖寫하여 冷泉亭에 봉안 하였던 것을 高宗 光武 4年 선원전에 불이나서 소실된 英祖 어진을 模寫하기 위하여 冷泉亭에서 가져다가 모사하여 선원전에 봉안한 것이다.³²⁾(그림 11)



〈그림 11〉 紅袞龍袍(英祖御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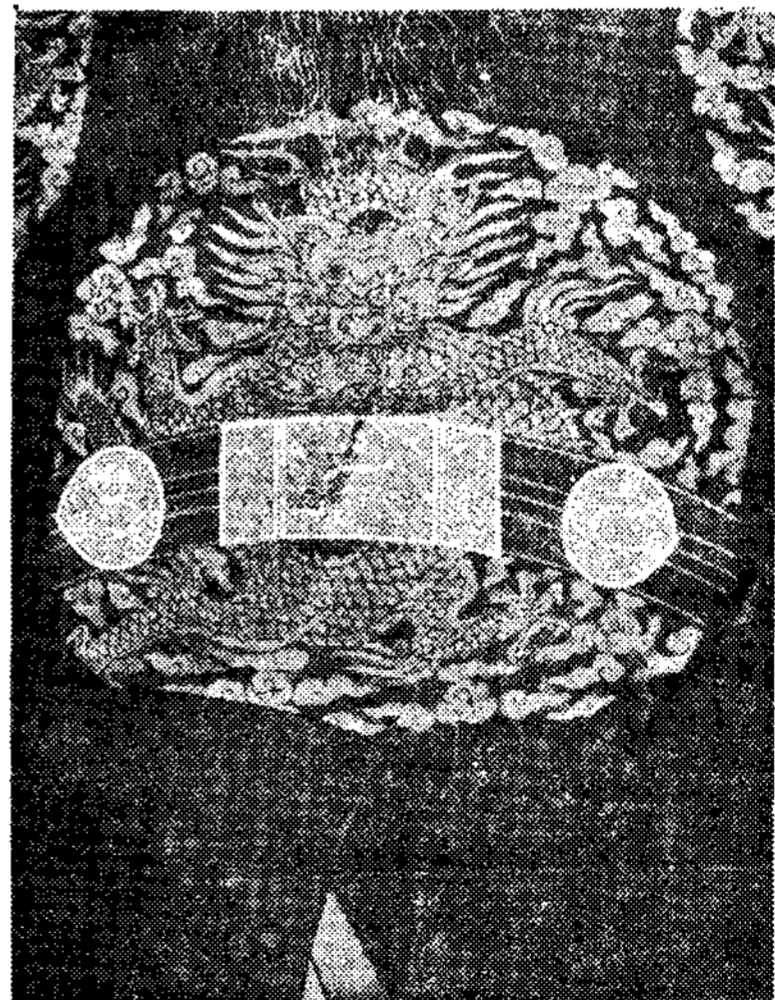
翼善冠은 帽頂이 매우 높고 烏紗折上 兩角의 끝이 완만한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太祖 翼善冠의 兩角 끝이 뾰족한 것이 조선 초기 형식인것에 비해 英祖 翼善冠의 兩角 끝이 원형으로 된것이 조선 후기의 형식인것을 알 수 있다.(그림 12) 袞龍袍의 색은 大紅色이며 團領의 깃이 매우 낮게 내려와서, 조선 초기 團領의 깃이 목에 꼭맞게 올라붙은 형태인것에 비하여 조선 후기에 단령 깃은 매우 낮게 내려앉은 형태로 변한것을 볼 수 있다. 前·後 양견에 五爪圓龍補가 매우 크게 金絲로 繡 놓여져 있고 金帶를 가슴 높이 띠고 있는데, 조선초기에는 대를 복부 밑으로 띠는것에 비해 조선후기에는 가슴 높이 띠는 형태로 변한 것을 보여 준다. 소매 넓이도 太祖代에는 진동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졌으며 소매길이가 매우 길었던 것에 비하여 영조 대에는 소매통이 매우 넓어지고 소매 길이도 길어

여유있는 느낌을 준다. 오른쪽 袖口 속에는 青色



〈그림 12〉 翼善冠 (英祖御眞)

內拱이 보이며 왼쪽 수구 속에는 草綠色 天益의 소매가 보이고 있다.(그림 13) 英祖 35年(1759)에



〈그림 13〉 五爪圓龍補와 帶 (英祖御眞)

거행된 「英祖 貞純后 嘉禮 都監 儀軌」에 보면 天益 一次에 草綠吐袖一匹, 內拱, 磻紅鼎袖一匹이 들어 있어있으며 仁祖 壯烈后 嘉禮 이후 純宗 純宗妃 嘉禮까

32) 「承政院日記」 第979冊 英祖 20年 甲子 11月 望前~ 12月 望前

지 歷代王과 皇太子의 天益의 색은 모두 草綠色이므로,³³⁾ 英祖 20년에 圖寫된 이 袞龍袍 소매속에 보이는 草綠色 소매는 天益의 소매일 것이다.

高宗의 袞龍袍를 입고 찍은 寫眞은 翼善冠의 帽頂이 英祖御眞에 비해 낮으며 折上角의 끝이 원형으로 둥글고 紫色이다. 袞龍袍의 색은 흑백사진이기 때문에 색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진에서 밝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黄色일 것이며 목부분에 團領 속으로 보이는 검은색으로 나타난 직령은 紅色直領裏일 것이다.(그림 14) 黄色은 먼셀(Albert



〈그림 14〉 高宗皇帝御眞

H. Munsell 1858~1919) 表色系로 볼때 明暗수준 (Home Value level)이 8로 高明度色이며 赤色の 明暗수준은 4로 低名度色이다.³⁴⁾ 그러므로 흑백사진에는 明度만 나타나기 때문에 黄色은 밝은색으로 紅色은 검은색으로 보인다. 또한 世宗大學校 博物館에 소장되어있는 高宗 袞龍袍에서 보면 表는 黄色團領이고 裏는 紅色直領이므로 高宗寫眞의 袞龍袍色은 黄色이다. 이와같이 袞龍袍의 색이 紅色에서 黄色으로 바뀐것은 1897年 國號를 朝鮮에서 大韓帝國으로 고치고 年號를 光武로하고 皇帝即

位式을 가진후 明의 皇帝와 같은 黄色 袞龍袍를 입었기 때문이다.

五爪圓龍補의 크기는 英祖代에 비해 작아졌으며 帶를 매는 위치는 같다.

純宗御眞에 보이는 翼善冠과 袞龍袍도 高宗寫眞에 보이는 것과 모두 같고 다만어깨에 수대를 더 두르고 있다. (그림 15)



〈그림 15〉 純宗皇帝御眞

4. 軍服 着用 御眞

軍服 着用 御眞은 哲宗 御眞 1本이있다. 이 어진은 오른쪽이 길이로 약 $\frac{1}{3}$ 가량만 타고 왼쪽이 $\frac{2}{3}$ 가량 남아 있어서 전체의 착장상태를 거의 完全히 알 수 있다. 왼쪽 상단에 表題에는 '予三十一歲眞'이라 있고 그 안쪽에 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이라 쓰여있다. 哲宗이 31才되던 해는 哲宗 12年(1861)이므로 이 해에 圖寫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16) 이 어진은 畫員 李漢喆의 7人이 담당하여 철종 12년(1861) 3月 12日에 시작하여 1달간에 걸쳐 圖寫하여 宙合樓에 봉안한 것이다.³⁵⁾ 畫員 李漢喆은 哲宗 2年(1851)에 9人의 畫員

33) 劉頌玉,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修學社 pp. 101~161

34) 劉頌玉, 「服飾意匠學」, 條學社 pp. 182~184.

35) 「御眞圖寫事實」 圖寫時 3月 12日 草本始役 24日 上綃始役 30日 粧纒始役 4月 18日 御眞表題 親書, 21日 宙合樓奉安

과 함께 哲宗 哲仁后 嘉禮都監 儀軌班次圖를 그린바 있다.³⁶⁾

이 哲宗어진의 軍服은 正祖가 顯隆園에 展拜하러 갈 때 입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을 것이다. 正祖는 父親인 思悼世子(추증 莊憲世子, 莊祖) 墓園 현릉원에 正祖 13年(1862) 遷奉이후 11年間 12회에 걸쳐 展拜하였으며 그 때마다 이러한 모습으로 具軍服하였을 것이며 특히 6번째인 正祖 19年(1795)에는 母親 惠慶宮 洪氏를 모시고 父母任의 周甲年 잔치로 華城 奉壽堂에서 進饌宴를 올렸다.

37)



〈그림 16〉 軍 服(哲宗御眞)

哲宗의 具軍服은 戰笠, 戰服, 동다리, 繡帶, 戰帶, 黑靴子로 구성되어 있다. 戰笠은 비치는 투명감이 있는것으로 보아 정제된 馬尾나 髮毛, 漆絲로 만든것으로 생각 되며 前面에는 黃金으로 만든 五爪圓龍紋透刻盤이 장식되어 있고 頂子에는 玉鷲가 높이 장식되어 있으며 뒤쪽으로 孔雀尾 장식이 늘어져 있다. 戰笠의 왼쪽 옆에 고리 장식이 있어 마노와 산호를 엮바꾸어 펜 貝纒으로 턱밑을 돌아 장식에 꿰어 전립을 고정시키고 있다. 전립 속에는 駿帽를 썼으며 그 속에는 網巾을 쓰고 있다. 駿帽는

위가 뾰족하고 아래는 둥글며 前後辨이 없는 것이다.³⁸⁾ (그림 17)



〈그림 17〉 戰 笠(哲宗御眞)

戰服은 겉감이 玄色紗이고 안감이 朱紅色紗인데 五爪圓龍紋이 들어 있다. 동다리는 黃褐紗로 된 길에 朱紅紗 소매를 단 狹袖袍 인데 소매 전체를 朱紅紗로 단 것이 아니라 소매 윗부분은 길과 같은 黃褐紗로 된 내려 달린 동이다. 동다리 옆터짐으로 안감이 朱紅紗인것이 보인다. 동다리에도 전복에서와 똑같이 五爪圓龍紋이 들어 있다. 동다리의 前·後와 양어깨에 五爪圓龍補가 붙어 있는데 어깨에 붙인 補는 전복의 어깨 위 까지 $\frac{1}{3}$ 가량 올라가 있다.

繡帶를 가슴 앞에서 補 위에 둘러 등으로 돌아 고정시켰는데 山, 海, 雲, 봉선아, 국화, 亞字, 卍字 등의 紋樣을 수 놓았으며 戰帶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문양까지 합한다면 더 많은 문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戰帶는 藍紗로 되어 있으며 繡帶위에 데 매어져 있는데 中心部로 길게 늘어져있다. 中心部에서 약간 오른쪽에는 전대를 수대에 고정시키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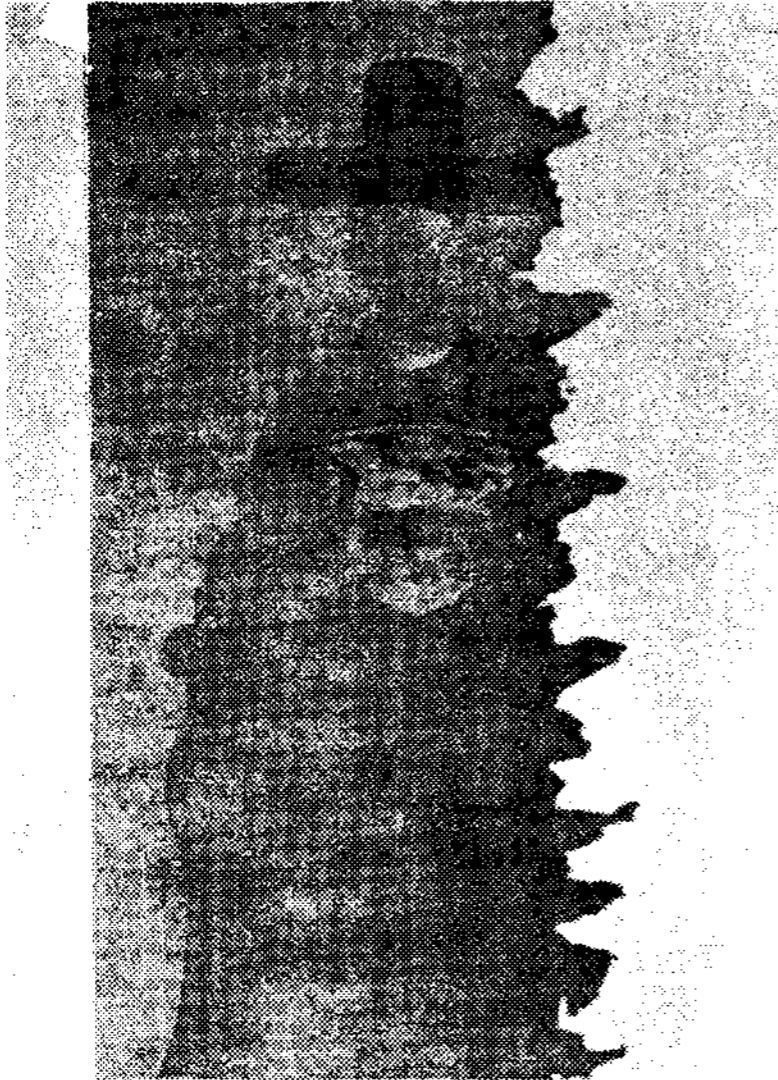
36) 劉頌玉, 「朝鮮王朝 宮中儀軌 服飾」條學社, pp. 24~51

37) 劉頌玉, 前掲書 pp. 379~421

38) 李裕元: 「林下筆記」 第十七 文獻指掌篇

黃金으로 된 唐草紋 장식이 붙어있다.

黑靴子是 高鼻靴로 앞 코가 위로 올라간 형태여서 白色의 밑창이 뽀족이 위로 올라와 있다. 아래에는 龍紋席을 깔아 놓고, 뒷 벽에는 칼집을 기대어 놓았으며 허리에는 칼을 차고 오른손에는 화려하게 장식한 赤色 등채를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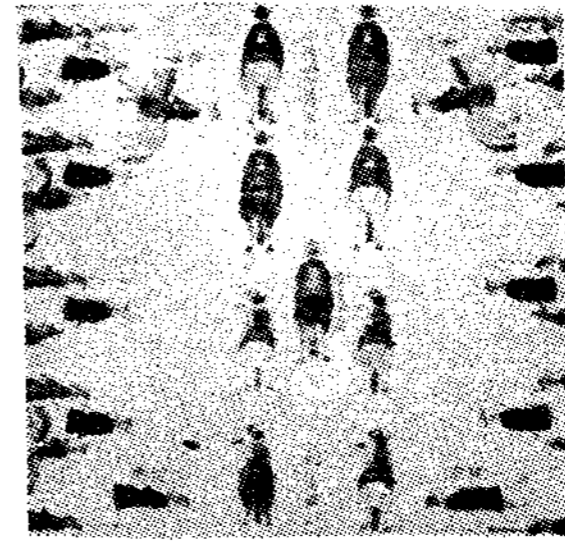
〈그림 18〉冠 服(延祔君)

5. 冠服 着用 御眞

冠服을 着用한 英祖의 잠저시 延祔君시절의 圖寫本은 王의 肖像畵는 아니지만 王이 되기 전의 王子시절의 晬容을 圖寫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다.

이 冠服本은 肅宗 40年(1714) 英祖가 王位에 오르기 전 21才된 延祔君의 신분으로서 있을때 畫員 秦再奚가 그린것인데 화면의 오른쪽의 1/3 정도 소실되었다. 좌측 상단에 '初封延祔君古號養性幹' 이라고 直書된 表題가 있다. 이 冠服本은 英祖 21年(1745) 慶熙宮 泰寧殿에 봉안 했다가 正祖 2年(1778) 璿源殿에 봉안 하였다.³⁹⁾ (그림 18)

冠服本을 보면 紗帽를 쓰고 靑綠團領인 常服을 입고 있다. 「經國大典」에 冠服構造에서 보면 王子君 常服으로 紗帽와 紗, 羅, 綾, 段으로 된 袍를 입고 白澤 胸背를 달게 되어 있다.⁴⁰⁾



〈그림 19〉常服, 哲宗哲仁后嘉禮都監儀軌班次圖

紗帽는 帽頂이 매우 높이 올라가 있으며 兩角도 옆으로 넓고 길게 뻗어 있어서 英祖代의 帽의 높이는 紗帽이던 翼善冠이던 조선 초기에 비해 높게 변천 된 것을 알 수 있다.

常服의 색은 「經國大典」에 王子君에 해당되는 無階에서 二品까지의 모든 常服色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延祔君이 鴉靑色團領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二品까지의 모든 常服色은 鴉靑色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王世子の 書筵服 制度를 보면 翼善冠은 殿下冠과 同一하며 袞龍袍는 黑緞으로 만들되 夏用으로는 黑紗로 만들며 形態는 殿下의 袞龍袍와 같다⁴¹⁾고 되어 있으며, 歷代 王世子 嘉禮都監儀軌에 보면 王世子の 袞龍袍의 색은 모두 鴉靑色이다.⁴²⁾

延祔君의 常服에서 보면 翼善冠이 아닌 紗帽를 쓰고있는 것으로 보아 王世子가 아닌 王子君의 신분으로써 圖寫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仁祖代 이후 歷代嘉禮都監儀軌班次圖에 보면 흥배를 붙인 신하들의 常服色은 모두 靑色, 靑綠色 鴉靑色 뿐이므로 仁祖代 이후의 二品以上の 常服色은 靑綠色계열로 생각된다. (그림19)

「經國大典」에서 堂上官의 公服色이 紅色이니까

39) 趙善美, 前掲書. 178~181

40) 「經國大典」禮典.

41) 「國朝五禮儀補序例」卷二, 王世子 書筵服

42) 劉頌玉, 前掲書 pp. 146~180.

常服色도 堂上官 以上일때 紅袍였다면 그것은 「經國大典」이 완성된 朝鮮初期의 상태였을지도 모를 일이며 仁祖代 이후에 가례반차도에는 紅色의 常服은 보이지 않는다. 이 常服色에 대하여는 추후에 더 연구하고자 한다.

靑綠團領에 큼직하게 붙어있는 胸背는 白澤紋樣이어서 「經國大典」의 기록을 잘 따르고 있으며 金絲로 繡놓여져 있다. 胸背를 가로질러 犀帶를 높이 띠고 있는데 그 위치가 英祖 紅袞龍袍本과 같다. 또 團領의 깃이 낮게 내려온 것과 소매가 넓고 길어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것도 같아 1744년에 圖寫된 紅袞龍袍本과 30년 전인 1714년에 圖寫된 冠服本이 同時代 同一人物임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IV. 結 論

御眞圖寫는 繪畫史에 있어서 各時代王의 御容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肖像畫로서의 圖寫技法과 樣式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또한 服飾史的으로 볼 때 各時代의 服飾制度和 服飾形態, 色相等의 變遷過程을 알 수 있고 특히 宮中服飾의 着裝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本 研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朝鮮王朝에 매우 많은 御眞이 圖寫, 追寫, 模寫되었고 그를 모시기 위한 眞殿이 세워졌으나 전란과 화재로 거의 없어지고 그나마 몇 폭의 御眞도 대부분 半燒 상태로 남아있으나 그것으로라도 圖寫技法과 服飾形態를 알 수 있는 것이 불행중 다행이다.

2. 御眞圖寫에서 服飾은 容顏보다도 重視 되었다. 즉 1回 圖寫時에 두가지 服飾 着用本을 각각 그리기도 한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服飾을 重視한 것은 制度가 직접 표현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服飾의 形態, 紋樣, 色相等을

古制와 당시의 規制를 충분히 참고하여 시정하면서 진행하였다. 太祖代에 圖寫된 御眞은 靑袞龍袍本인 것에 비하여 憲宗代에 그것을 範本으로하여 模寫한 太祖 御眞은 紅袞龍袍本으로서 靑色을 紅色으로 바꾸어 彩色한 것에서도 그 당시 服飾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3. 御眞에 나타난 服飾과 文獻 記錄은 대부분 一致하고 있다.

「國朝五禮儀序例」의 記錄에 王世子 祭服圖說과 翼宗 御眞의 冕服 形態는 일치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御眞에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經國大典」의 기록은 시대에 따라 약간 再考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다. 延祜君 常服의 色은 靑綠인데 「經國大典」의 기록에는 색에 대해 확실한 언급이 없으며, 胸背는 白澤으로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經國大典」의 記錄은 약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4. 御眞圖寫에 나타난 服飾을 통하여 時代에 따른 變遷相을 알 수 있다. 太祖 袞龍袍本에서 翼善冠의 帽頂이 낮고 折上된 兩角 끝이 뾰족하며 團領色이 靑色으로 깃이 목에 꽃맞게 올라붙어 있고 帶를 아래로 내려 매는 形態인 것에서 朝鮮初期 服飾의 形制를 알 수 있는 것에 비하여 英祖 袞龍袍本 御眞에서 翼善冠의 帽頂의 매우 높고 折上된 兩角 끝이 원형으로 완만하며 團領色이 紅色으로 깃이 아래로 낮게 내려왔고 帶를 가슴 높이 올려 매는 形態에서 朝鮮後期 服飾의 形制를 알 수 있다. 또한 高宗, 純宗 御眞에서 翼善冠의 帽頂이 낮고 折上角의 끝이 둥글며 團領色이 黃色으로 바뀌었고 깃이 아래로 내려 앉고 補가 작아진 형태에서 大韓帝國 服制를 알 수 있다.

以上の 결과로 볼 때 朝鮮時代에 製作된 御眞이 모두 現存한다면 그 變遷相도 各時代別로 더욱 세밀하게 고찰할 수 있었을 것인데 대부분 燒失된 것에 대하여 더욱 아쉬움을 느끼나 現存하는 御眞으로라도 어느정도의 變遷상을 알 수 있다.